東亞日報
朝刊 本紙夕刊合十面

社說

米穀對策案과 外地米
「原則的移入自由」 實際는 統制差別

一

十數年 日本을 悩殺하고 一般의 關心事이든 米穀問題가 今日에 와서 … [illegible]

二

[illegible]

三

第三의 外地米統制에 關한 條項에는 무엇보다 「米穀의 移入은 原則으로 이것을 自由로함」이라는 것을 … [illegible]

米國의 態度如何로 會商成否가 左右?
日本提案에 米國은 終始反對
豫備會談前途暗澹

[倫敦二十六日發聯合] [illegible]

英首相이 自進하야 日米調停에 努力?
兩國仲裁者의 位置에 處하야 一流의 政治工作으로

[倫敦二十六日發聯合] [illegible]

海軍豫備交涉과 注目되는 日英米의 戰鬪艦
上, 英國의 戰鬪艦넬슨 中, 日本의 戰鬪艦日向 下, 米國의 戰鬪艦콜로라도

國民皆兵制確立
中國新憲法의 特色
滿洲國은 不承認意嚮

[上海特派員發信] 第五次國民黨代表大會에 提出될 中華民國憲法案은 十月初旬부터 二十日까지 [illegible]

江西南部의 共軍
湖南貴州에 進出
安遠과 信豊을 占領

[南昌二十七日發] [illegible]

于學忠氏北行
河南主席에 就任?
蔣介石氏와 會見後

[漢口二十七日發聯合] [illegible]

滿洲의 石油政策
英紙, 機會均等原則強調
英權益에 重大影響

[倫敦二十七日發聯合] [illegible]

瓦房店事件解決

[大連二十七日發聯合] [illegible]

關東廳員及警察官
辭表撤回決定
全部新機構에 投合

[旅順二十七日發聯合] [illegible]

三局長도 新機構幹部에 就任

[旅順二十七日發聯合] [illegible]

巡洋艦增加案
英國側에서 提案
五十隻을 七十隻으로 擴大
米國도 贊成意向

[倫敦二十七日發聯合] [illegible]

현더슨議長 米代表訪問

[倫敦二十六日發聯合] [illegible]

國策審議會
設置方針을 決定
◇廿日의 閣議에서

關係四次官을 招待 吉田翁長意見聽取
東北振興會議續開

[東京電話] [illegible]

追加豫算携行 林財務局長渡東

[illegible]

貴院의 批評

[東京電話聯合] [illegible]

國策審議會와 政友側態度

[東京電話] [illegible]

米賣却數量 農林省發表

[東京電話] 日本內地米 賣却數量은 如左
豫定數量 七五七、七二六石八
決定數量 三八五、五一四石四

拓相、長官에 善後處置依賴

[東京電話] [illegible]

蔣公使外相訪問 諸懸案解決을 協議

[東京電話聯合] [illegible]

기침에 잘듯고 먹기좋은 약

百日咳! 豫防과 治療에…… 지밋신

어린애의 기침은 감기 폐염 백일해의 위험신호입니다 하로밧비 지밋신으로 곳처주십시요。

지밋신은 담·기침에 잘듯는 약을 엄선하여 조흠으로로써 약을 실허하는 어린애라도 잘먹게 됨으로 매우 유효합니다 또한 극약성 분이 석겨잇지 안음으로 아무런 부작용의 염려가 업스니 아모때 몸이 약한 어린애의게도 안심하시고 먹이실수 잇습니다。

그럼으로 거정병중에도 가장실한 백일해(百日咳)의특효약으로써 칭찬을받고잇사오나 그 외에도 사용하시면 예방이되며 진행중에 사용하시면 경과를빠르게하고 고통이 적은 효과를 다스립니다。

밧튼기침…감기…호흡기관의병으로인한담·기침

조선에만흔 밧튼기침 로인들의담·거정에서 용하시면 담을삭게하고 기침을가란처며 밤에잠을 잘주무시게합니다。

어느가정에도한병식 준비하시사 기침을하거든…… 한숙갈 잠재일때에…… 한숙갈석……

사용하시면 잠을잘자게되고 자는동안에 병증의악화를방지하고 회복을빠르게합니다。

一回用量— 嬰兒…三瓦、小兒…四歲前後…五瓦、八歲前後…十瓦、大人…十五瓦에…

定價…… 三〇〇瓦…一圓八十錢 一五〇瓦…一圓 五〇瓦…四十錢

全道藥房에서 販賣합니다

發賣元 東京市日本橋區本町二ノ七 武田長兵衛商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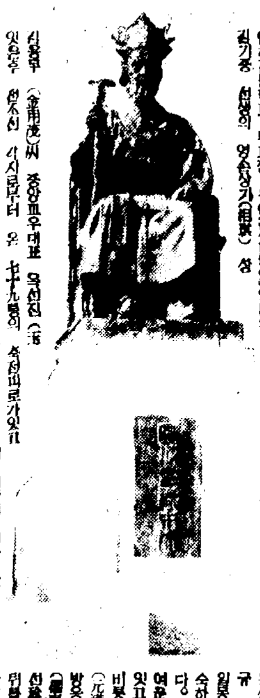
TY-K-6

ClibPDF - www.fastio.com

千秋에 記念될 圓坡翁의 莊重한 銅像除幕式

三千의 社會各方面人士會集

秋空엔 飛機로 花環投下



고원파 김기중(金祺中)선생의 기념동상 제막식은 기보한바와같이 二十七일 오후二시十분에 계동(桂洞)중앙고등보통학교(中央高等普通學校)교정에서 윤치호(尹致昊)씨의 사회로 개식되엇다. 가을날 밝은 빗이 장안을 빗처 쏘이는데 생전에 티끌하나 아시 하고에 자라나는 보전(普專)과 중앙 一천二백여명의 학생과 선생의 혜택을 받은 친족들이 밀려들엇으며 조선의 교육계의 중요한 기관들과 함께 엄숙한 감회 속에서 순서가 차례로 진행되엇다. 식사와 약력과 사업보고가 잇은후 이천각하고 부교장 유억겸(兪億兼)양씨의 김기중 선생의 영송창가(詠頌唱歌)상 게서의 대표로 근三천의 회엇다. 부교장 김활란(金活蘭)씨의 동상헌납의 례식이 잇은후 규(奎)양군의 손으로 일봉이 기념탑속에 가장엄숙하게 헌포장이 막은덜렷다.

여운형(呂運亨)씨의기념사가 잇고 경기도 지사의 축사를 비롯하야 연전교장 원한경(元漢慶)씨 조선일보사 장 방응모(方應謨)씨 보전교우 대표 권동진(權東鎭)씨등 제씨의 축사가 뒤를 이어 고원파 선생의 막엇는데 이동안에 조선비 이채잇게 하엿다 한다.

김용무(金用茂)씨 중앙교우대표 옥선진(玉璿珍)씨 가잇은후 원조선 사시부터 온 十九명의 축전 따로 가잇고 안사 김성수(金性洙)씨의 사사(謝辭)가잇고 동 三시十분에 원만히 식을 끗 맛치엇다 한다. 원 김용무(慎鏞頊)씨의 속이 정곡비행이잇고 화환투하가잇어 한층이식을 빛내엇다 한다.

(사진은 고원파 김기중씨동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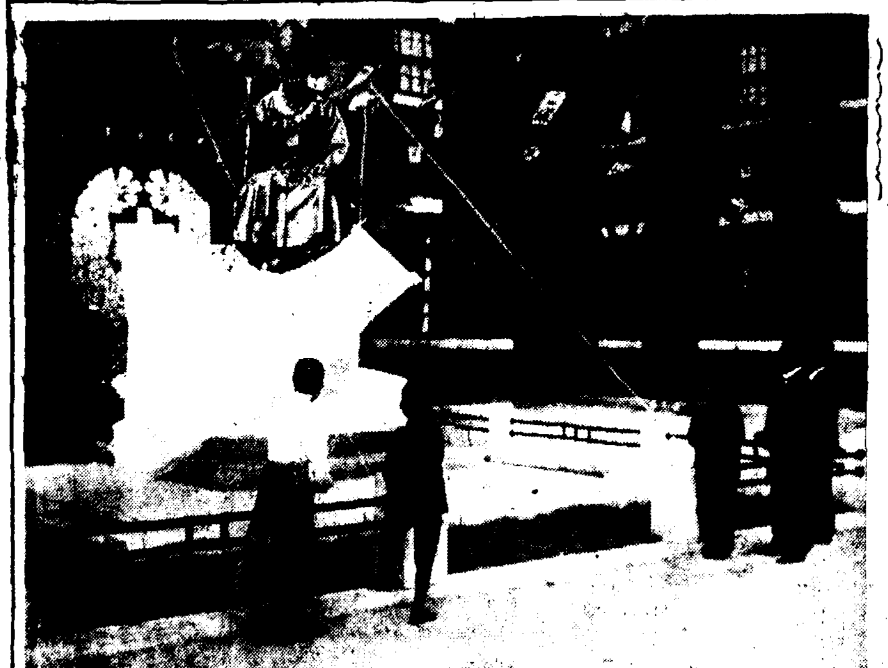
全社會가 誠心으로 偉大한 業蹟을 記念

司會 尹致昊氏의 式辭

고원파 김기중 선생의 기념 동상제막식을 거행하게된 여기에 참석하신 신사제씨와 학생제위여. 다아시는바입니다. 이 동상 제막식이 잇슨 의의기보담 특색잇는 것은 전조선교육계와 사회가 이마음이 이 정성들으로서 바치게되는것입니다. 숙원정신을 용해서 선생의 위대한 업적을 표현하는것으로서의 특색 잇다는것입니다.

寫眞說明

(上) 故金祺中翁銅像 除幕光景 (下) 同除幕式場



文錫五氏 六個月努力

금번 고원파 김기중씨의 동상

事業廿六年동안 小、中、專門完成

사업위해 五十만원희사

崔奎東氏 略歷報告

후에 용담(龍潭) 군수를비롯하야 평택(平澤) 동복(同福)등지 군수로 전임하시후 명치四十년에 관직을사임하셧습니다.

사직하시어 변에 전북고안(扶安)에다 현재는줄포(茁浦) 보통하교이 전신인 영신(永信) 하교를 창립하고 대정三년四월에는 인문내가지를 시찰하고 이년五월에는 경성중앙학교를 인계하여 동十년四월에는 중앙고등보통학교로승격을 시키셧습니다.

소화三년 二월에는 영제김경중(金璟中)씨등과 함동협하야 六十만원의 재단법인중앙학원 (中央學院)을 창설하셧습니다.

동七년 四월에 역시영제와함께 보성전문학교를 인계하여 현재에 이르고 소화八년 九월三十일에 七十五세를 일기로 세상을 하직하셧습니다.

그의 사업연한이 二十六년동안이오 그동안하시는 사업을 위하야 희사한 재산이五十만원에 달합니다

敎育界代表發起 喜捨한분千八百

宋鎭禹氏의 事業報告

원파선생 기념동상 건설기성회는 작년 十一월十六일 오후 四시 반에 전조선중등정도이상의 교육 계대표자들이 동아일보사 회의실에 모여 박기회를 조직하고 위원장 윤치호(尹致昊)씨를 비롯하야 실행위원 三十三인을 선정하엿습니다.

동상의 주조는 동경미술학교(東京美術學校)를 졸업한 신진청년조각가 문석오(文錫五) 씨에게 의뢰하야 금년 二월에 착수하야 동七월에 완성하고 석대(石臺)는 등전(藤田)씨에게 의뢰하야 五월부터 시작한것이 八월에 완성되엇고 원채은 역시 등전씨의 제작으로 九월에 완성 되엇는데 공사총기간이八개월이고 공비총액 五천원입니다.

그중 二천五백원이 동상주조에, 一천 六백 八十四원이 석대, 원채이 六백원 남은것이 잡비로 쓰엿습니다.

의연하신분은전조선사립중등학교의 참가하고 四十二파, 희사한 분이 一천八백七十七인 입니다. 끝으로 동상기(銅像記)는 편찬중이므로 끝나는대로 보내어드리겟습니다.

謝辭하는 令嗣 金性洙氏

은 가장미술적이오 또 선생의 생존시의 모습과 다름이없어 동상을 대할때 생전에 선생을 대하는듯 한 감상을 준다.

동상의 주조는 동경미술학교(東京美術學校)를 졸업한 신진청년 조각가 문석오(文錫五)씨에게 의뢰하야 금년 二월에 착수하야 동七월에 완성한바 씨의 각고의 노력이 또한 적지안핫다.

(사진은 조각가 문석오씨)

社會各界代表의 祝辭

元漢慶氏

세상에나서 살다가 죽는우리들이 그자취를 오래남기기 위하야 비를세우고 산소를짓고 가념품을 만들고 서적을 짓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사업이업슬 때에는산소는 흙으로화하고 비석은 문허지고 책은보는사람이 업어집니다 그러나 원파선생은 그의사업이 특별하시고 그자최가 위대하심으로 그의기념상은 오래 이민족의 길을열고 또이민족청년이 길을이 도할것입니다 그럼으로 이동상을 세워 후세천추에 보는이들에게자극과 시도를주려는것이므로 우리는 축하하고 이앞에서 자라나는학생들을축복하고싶습니다.

方應謨氏

오늘 고원파김기중선생의 기념동상제막식에 참석하게된것을 광영으로생각합니다.

선생은 이즉 대정四년이래 二十여년간 영재교육에힘쓰시고 六十만원의 교육재단을 세우신것이나 소화七년에 보성전문을 인계하야 장하신것은 모다우리조선교육계에선각이신일 말하고잇습니다.

그의 사업은 김성수씨와 음으로양으로 협력하는사업자로서 활동적으로 협력하야 완성과확장을 이루어가고잇는것을 우리는 보고잇읍니다 남기시사업이 융흥함을 빌고마십니다.

權東鎭氏

단체와개인으로 그사회에 끼친은혜가 클때에는 그사회와민중은 그를표창추앙하는것이 당연합니다 교육은모든사업에의 기초입니다 더욱이 조선에잇어서는그러습니다.

단체로서도 능히못하는 이사업을개인으로도 완성하신 원파선생의 노력과 성의는 실로위대합니다 조선에 가장필요한사업을 완성하신선생을 영원히 기념하려는의미로 이동상을 건설한것에 불과합니다.

선생은 우리사회의 선각이오 조선의 자랑이오 우리의 선배이십니다. 한개의동상파 돌로서 능히 그위대한것은 표현시킬수도없읍니다. 오직영원한 또구영한 기념품을 우리는 세우는데 의미가 잇습니다.

人類는왓다가도 偉業은永遠!

呂運亨氏의 記念辭

저우에 현회장이 열어지면서 장엄한 현상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는 고원파 김기중선생이십니다. 이세상에 왓다가 가는이는 참으로 만습니다. 그러나 인류사회에 업적을 남기고 간이는 극히 적습니다. 이런의미로 선생의 사업파 자취는 우리에게 불가불 기념하지 아니할수 없게 됩니다.

사람은 나면반듯이 죽습니다. 죽으면 표기는 땅에 썩으나 정신은 살아 만대에 계속되고 발전되어가는것입니다 우리 원파선생에게서

玉璿珍氏

중앙파 보전에 배호는 스승의 제자가 현재千명을 돌파하고 종양복마춘 학우가 수천명이 넘니다. 그들은 모다 선생의 은혜를 받들어 전조선 방방곡곡에 터저서 문화발전에 노력하고 잇습니다.

선생은 조선문화 사상에 썩지아니하는 탑을 세우셧습니다. 조선민족의 은인입니다. 그럼 평시에도 잊지아키위하야 적으나마 이동상을세운것입니다.

金用茂氏

선생이가신지 一년이 되엇습니다. 오날에 그의 영자를 대하매 감격이 새롭습니다. 조선교육계에잇어서 청년의사표가되시고 호리정신을 가다듬어 주십니다.

빔기는 조선이 길을 일흘때에 해불로 밝혀주시고 그룻된길로들게 될때에 정로로 들게하시고 쓸쓸할때에 자애로써 따뜻하게해주십습비랍니다.

遺業을繼承해 發展에努力

선친의 영이 지하에서도 감격

令嗣 金性洙氏 謝辭

선친이 교육사업을위하야 다소힘을쓰셧슴에 대하야 표창기념하는취지로 전조선 교육관계제씨의 발기로 기념동상을 중앙교등보통학교정에 건립하시고 금일사회가방면인사의 내림하신가운데 그제막식을 거행하게되오니 생을유족 선친의 영도 지하에서 감사하실줄로생각하오며 생등 유족은더 나마 사계의진보 발전을 위하야 만 선친의유지를 받아서 미력이 노력함으로써 여러분의 성의에보답하기를 기하는바 입니다 무사이오나 몃마디로 감사의 뜻을표합니다.

그의 사업은 그의 영사 김성수 군이 뒤욱 더 발전 시킴것을 축복하는 의미로 이 기념동상을 세우는 동시에 이압에서 배호는 무리들파 사회도 민중도 늘이불을 모르는 수천도를의 눈앞에 나타나다.

咸北一帶를驚動케한 "富寧赤色테로"終審

◇……被告는 張炳喆外八名

卅日、淸津法院에서公判

【청진】 시삽 소화 六、七년에 잇어 함북 청진(淸津)、부령(富寧)일대를 경동시키든 부령 적색 테로사건 (富寧赤色테로事件)의 관계자 장병철(張炳喆)외 八명은 체포된이래 청진지방법원(淸津地方法院)예심에 부처 엄중히 취소를받고 잇엇든바 드디어 이사이에 예심이 종결되어 공판에 회부 되엇다고한다.

공판은 오는 三十일 오전九시에 동법원 형사법정에서 송전(松田)재판장의 주심과 송본(松本)검사의 입회하에 양대경(梁大卿)변호사의 열석으로 개정하게 되엇다는데 출정피고는 다음파갓다고 한다.

▲張炳喆▲張炳輔▲張震松
▲張龍條▲張鎭命▲張彩煥
▲張南龍▲張炳衡▲石會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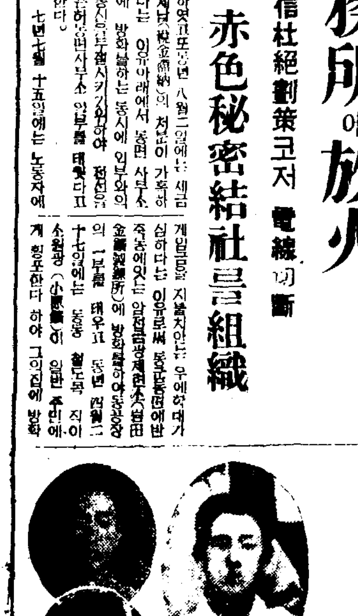
列車顚覆을計劃 面事務所에放火

通信杜絶劃策코저 電線切斷

赤色秘密結社를組織

동사건의 내용은 전기장병철외 八명은 소화六년경에 부령군청암 면 반죽동(富寧郡靑岩面班竹洞)에 사는 장용조의집에서 공산주의적 비밀결사를 조직하야 동년六월二十一일과 동二十三일에는 二회에 궁하야 동면 제궁교(齊宮橋)부근에서 기차전복을 꾀하다가 실패하엿고또동년 八월二일에는 세금 계엄등을 지불치안는 우에하대가 심하다는 이유로써 동군동면에반 죽동에잇는 암천금광제련소(岩田金鑛製鍊所)에 방화를하야동공장의 一부를 태우고 동면 四월二十七일에는 동동 철도목 직이 소원광(小原廣)이 일반 주민에게 횡포하다 하야 그의집에 방화하야 一부를 태웟다고 한다.

또 동년五월 七일에는 노동자에게 중간파 장은룡의 집에서 내용이 과격한 격문 천여매를 등사하야 부근 동민에 산포하엿고 동년 五월 一일에는 민심을 소란시키기 위하야 청진(淸津)、나남(羅南) 간의전신선(電信線)과 전화선(電話線)十一개를 끈헛다 하며 동시 인 오후四시 경에는 격문을 동사하기 위하야 청암면 면사무소에 서뭉사판을 절취하엿다고 한다.



사진은 被告들 (右上) 張炳喆、張鎭輔、張震松、張龍條、張鎭命、張彩煥、張南龍、張炳衡、石會甲

奉天某處에到着된 國民○○軍情報

名稱은××××軍으로改稱

部署고치고住民에徵金

【봉천】 흥경현(興京縣)一대에 근거를두고 활약하든 조선○○단 국민××군(國民××軍)×군 김 지방(金鑛邦)은 최근 수령회의(首領會議)를 흥경현제七구 흥내(興京縣第七區興內)지방에 열어가지고 종래의국민××군을 ×국××군(國××軍)으로 고치는 동시에 조직을 총무부(總務部)내무부(內務部)외교부(外交部) 공무부(公務部) 경제부(經濟部) 중앙공안부 (中央公安部) 문교부 (文交部)등 七부로 편성하고 각부 관할지 일대의주 동지에 거주하는 조선사람에게 일부금 매인一원五十전파 배호에 쌀 二두(斗)식을 징수키로 하엿다 한다.

이동상이 열흘후얼마 안나 이 제생이 잇지나도 게울은 속하고는 깊이 이개습시이겟습니까 생각이 잇지안도 그의 자자손손이 이동상을 대할때 명심할것입니다.

리는 나남으로 부터오는 중국인 장주영(張國有)은 동생인 몽서 千명회 작이되고 떨엇다는데 의자로 동행을 경계중이든 이천 서원이 인치하야 엄중 취조중이나 그 공범이엇든 유성엇(劉成玉)은 수배이불파 상엇으로 수사중이라한다.

羅南中國人 殺害容疑者 진범이아니라고

【인천】 지난二十四일 나남(羅南)중국인 양선길(楊鮮吉)살해사건이잇은 의二十三일 오후一시三十六분 상인천(上仁川)역에서 나

下關에大火 四十餘戶全燒

【하관전화연합】 二十七일 오전三시반경에 하관시 입강정 본통(下關市入江町本通)산전차옥(山田茶舖)에서 불이 이러나 四十여호를 전반소한후 동五시반경에진화되엇다고 한다.

그 부근에는 파세무소 (巴稅務署)가잇 매검주들이 즉비한 곳이지만 일시대혼잡상태를 정하엿으나 손해는 약六만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발화원인은 동점의공장 산전우일(山田友一)의집에서 二十六일밤에 차를 끄리든 불에서 발화한 것이라고 한다.

大宮에도

【대궁전화연합】 二十七일 오전二시경에 대궁정부사군 대궁정(大宮町)사번지 좌등송작(佐藤松作)의 창고 에서 불이일어나 때마침 부는 열풍(烈風)의 승세를탄 삼시간에 三十六호를전소한후 오 전四시경에 진화되엇다는데 아직 상세한 수자는 알수없으나 손해는 막대할것같다하며 원인은 불명하다고 한다.

大阪朝鮮人救濟코저 信用組合等을設置

購買組合으로日常必需品購入

貯金과資金을貸付

대판부(大阪府)에서는 부하재주 조선인 十五만명의 생활안정을 시키기 위하야 산업조합법(産業組合法)에 의하야 대판부 협화신용구매이용조합 (協和信用購買利用組合)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야 고 일주이 등택(藤澤)사회과장 하래(賀來)사회사업주사 기타 판세계의 손에서 입안중이든바 드디어 성안되어 일계 되엇으므로 불원 시행하기로 되엇다.

동조합은 신용구매이용의 三종으로 나누엇는데 우선 十월으로 매월 一원씩 불입하야 제一 계획으로 조선인이 만히 살고잇는 동정(東淀川)、욱(旭)、동성(東成)나파 천왕사(天王寺)、서성(西成)、나파 (浪速)、대정(大正)의 각구에 두고 회원은 독립생활을 하고 잇는 사람으로 이정한 직업파 수입을 가지고 잇는 사람이 유자격자이며 그사업으로는 신용조합은 十전저금과 자금의 융통으로 되엇고 구매조합은 일상생활의 필수품을 싸게 구입하야 배부하고 이용조합은 이발소·욕탕등을 경영하기로 되엇다.

松本機不時着 安養川附近

【서울시흥전화】 송본기(松本機)는 시흥군서면박안리(西面博達里)가리대(加利垈)에서 시흥면 한리 一천 五백미 안양천(安養川)제방 부근의 밤가운데다.

白晝에山猪 (평강지방二十六)

인 오후四시경 평강군(平康郡)지가지에 출현하야 잇시대혼잡을 두마리가 출현하야 순통이 잡으려고 이루어 수백명 군중이 불구하고 추격하엿다 도야지는 나는새와같이 시가지를 빠저나갓다.

咸南道犯罪 萬七千餘件

【함흥】 함남도내에서 조사에 의하면 작년중 함남도내에서 발생한 범죄건수는 一만七천四十六건이라는바 그중 일본내지인의 것이 六백九十九건 조선인의것이 一만六천二백二十五건 외국인의 것이 二백十二건으로 그중 절도가 二천四백七十건으로 가장 만흔데 다음은 사기 강도 횡령등이라는바 전년도에비하면 조금 감소된편이나 해마다 늘어가는 형편이라고한다.

파하야 아무산(峨嵋山)으로 다라낫는데 우외같이 산중에서 헤매다 한다.

日曜講話

▲中央禮拜堂 (낮) 耶蘇의友 張聖煥牧師 (밤) 信仰의能力 金永煥牧師

▲南大門外敎會 (낮) 깃으로숨기는자 朴準田牧師 (밤) 예수의最上形便과現在의우리 金英珠牧師

▲南山敎會 (밤) 金剛經講義(第五回) 李晉光氏

▲覺皇寺 (낮) 無我堂 朴允進氏

▲貞洞敎會 (낮) 十字架의眞理 卞鴻圭氏 (밤) 聖經으로主唱하는것이냐 張聖翰氏

▲西大門敎會 (낮) 크리스도의싸움 劉泰鼎氏 (밤) 千里를가서 姜泰熙氏

▲石橋禮拜堂 (낮) 聖經의二大方面 金昌俊氏 (밤) 未定 朴東完氏

그날그날

陰九月二十一日 (日曜日) 陰八月二十日(土曜)
日出 前六、五二 日入 後五、四○
日出 前九、五三 月入 後一二、一六
〔滿潮〕
仁川 前八、○○ 後八、四四
釜山 前一二、五○ 後一二、五○
元山 前○、一五 後一二、二○

ClibPDF - www.fastio.com

어린이 日曜

사막은 어떠한 곳인가

물도없고 풀도없는 모래벌판 / 락타는 그곳의 기차랍니다 / 바람을 맛나면 큰일이래요

여러분이 여태것의 세계일 여행기(旅行記)를 보앗거나 여행을해보시다면 조선에서 도저히 볼수없는 이상스러운곳을 만히보실것입니다. 우리조선은 세계에서 제일 기후가 조흔곳으로 유명하지마는 다른곳에는 별별이상한곳이 만히잇습니다. 예를들면 일년열두달 어름과 눈이 녹을날이없이 사는 북극(北極) 남극(南極)이잇고 또는 옷을 몸에걸칠수가없이 더워서 견디지 못하는곳도잇고 일년이면 반년은 밤이오 반년은 낫으로만 되는곳도 잇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세상에도 이상스러운 사막(沙漠)이야기올시다. 사막이라고하는것은 넓고넓은 모래벌판에 풀, 나무, 집, 사람, 소리, 곤충, 새들이라고는 구경도할수없는 무서운 곳입니다.

이러케 무서운곳이 조선에서는 차저보래도 차질수없는것이 다행입니다. 어린분 혹 해변이나 강변에서 거름을 거러보셧는지오 모래우에서 거름을거를라면 타박거리고 뒤로물러나가는 듯이거름을 거를수없는것을 경험하셧슬것입니다.

세계제일의큰사막은

아프리카에잇는사하라사막이라는것인데 세계에서 제일크고도 무서운곳입니다. 크기는동서(東西)거리가 조선의수로 二만리오 남북(南北)거리가 四천리라고하니 조선보다 멧배나될것인가 짐작해보십시오 어렵케도 큰모래벌이 테평양 대서양보다 넓게 덥혀잇으니 상상할수없는 일이나 다 이모래벌판에는 눈도아니오고 비도아니오고 물이라고는 한방울구경할수없는데다가 일년 三백六十五일 하루도비가오는날이없어 불같은해가 나려쪼이기만 하는고로 그사막가운데에서 눈을 뜨고잇으면 삼시간에 눈이와서 멀게되고 숨을쉬면 폐장이리를 상키는것갓답니다.

사막의락타여행

이사막의길이라는 몃 백리이되는지 측량할수가 없는곳이라는데 역사이가도여행을 아니할수가 업답니다 그러나여기는 기차나 자동차나 아무것이던지 타고 건늘수가 없는데 락타를 타야 하게 되엿습니다.

어린분 무엇인지 짐작하실것입니다. 모래벌에서보시면잔등이에 혹이한가지씩 잇는것을 보셧지오 그것을타고는 사막을 건늘수잇다는데 한번타면 사오일을 준비하여가지고 여행을하기는하나 중도에 먹을것이 없어지면 숙행한이죽게된답니다.

그리고 제일 기막힌것은 이사막을건너다가 큰모래바람을 맛나는일입니다. 불에타는듯한더위에 여행을하고잇는데 어데서 바람이 일기시작하면 기둥같이 몽이올리며 큰바람이 이러나는데 멧천척이나 놉게 올라가 하늘을 덥허 천지가 캄캄하게 되는 동시에 나타나 사람은 어디까지든지 불려올라가게 되는데 바람은 적어도 三, 四시간이면三四일을계속하야 그동안에는 어리저리 모래같이 불러다니다가 바람이 멈춘뒤에 눈을떠보면 앞에 단 멀서이되며 못기어하고 죽는일도 잇답니다. 그러기에여기를 낙타에태고여행하는것은 무수한죽을 생각을 하고야 된답니다.

◇…일망무제한 사막으로 가는 낙타와 멀리 앞을 내다보는 대상(隊商)의 두사람

어린이新聞

열리기 다치기 三十年동안 / 이제는 아조다치는 鴨綠江鐵橋

어린분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늘 배우고 또 책에서도 그 그림을 보아 잘 아시는 압록강철교에 큰 변동이 생겻습니다. 그것은 저 유명한 열렷다 닷쳣다하는 압록강의 철교가 영영 다쳐지고 마는 까닭입니다. 조선에서 제一긴고 또 큰 압록강이 백두산(白頭山)에서 근원하야 평안도 만주의 산속과 들판을 흘러나려서 황해(黃海) 바다로 드러가는것인데 조선의 신의주(新義州)와 만주의 안동현 사이에다 놋 이다리는 지금으로부터 三十년전에 일로전쟁이 시작되던해에 노흔것입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배와 물화(物貨)를 뭇에 내노코한것이엇는데 이제는 아주 다치고마럿습니다. 어려분이 그림에서보셧지만 다리중간이 빙그르돌아가지고 열리는 모양은 참으로 한 조흔 풍경이엇습니다. 그러든 국경의 명물(國境名物)이 지난二十五일부터 아조 그러케하지도 말게 버리는 일을시작햇습니다. 이제는 압록강의 그열리고 다치는것을 영영 우리의 눈앞에서 살어지고 마럿습니다.

조심하시요! / 어린이셋이 죽엇습니다

지난二十一일 함경남도 함주군(咸州郡)어떤동리에서 평안도 사는김대수라는 어룬의 아들 의례(△)시백(△)와 두어린이와 장순(△)이라는 어린이의 세동무는 못쓰는 파이나마이트를 가지고놀다가 그만 그것이 발달하야 죽고말엇습니다 어려분 얼마나 가엽슴니까 그러니 아예 그런데에가서 놀지마릅시다.

할아버지銅像의 幕을열은 두어린이 / 金相琪、金相珪 두兄弟

◇…사진은 김상규군과 김상기군

조선에서 학교를 만히세우고또 여러가지 조흔사업을 하시고작년 九월에 도라가신 훌륭한 어룬이 한분계십니다. 그분은 김기중(金祺中)선생이신데 어제 서울 계동에 잇는 중앙고등보통학교 에서는 도라가신 선생의 덕(德)과 공(功)을 기념하기 위하야 여러분들이 모여서 동상제막식(銅像除幕式)을 거행햇는데 그동상의 막을 열기는 도라가신 선생의 손자가 되는 상기(相琪)와 상규(相珪)의 두분이 하엿습니다. 이 두어린이는 하라버지가 사러계실때에 퍽 귀여움을 받엇다고 합니다.

어린이日記

八月一日(水)晴 정주보통 龍川公普 任玉準

아침에 매우굿게 이러낫다. 옷을입고서 하로간공부하기에 밝그로 뛰어나갓다. 앞시내에서 물나러 가는누이가 하나처럼하기에 쫏치가서 고구은 물에다 발을 담그고 물을 가며어 드려다보앗다. 오후에동무들이 해수욕가자고 하는데 실타고하엿다. 어쩟케 정호가 해수욕을하고 왓는데 얼골이 어찌 겁진지 나는 놀낫다. 그래서 해수욕이 무서워젓다.

정순네집을 갓더니 참외를 먹다가 어준다 그래서 참외를 먹엇다 어떤아이와싸웟다. 저녁때 집에 도라와서 형님한테 싸웟다고 꾸지람을 당하엿다.

八月一日(水)晴

오늘은 아츰부터 재미잇섯다. 나는 책을읽는동에 여름에 아이들에게대한 그림을 자미잇게 보앗다.

동무들이 만히찾어와서 산으로 놀너가자고하는데 나는할 일에 골물주라고 못갓다.

오후에 형님이 수박을 사가지고와서 나는 퍽조화하엿다.

저녁을먹고서 마루에안저서 시원이부러오는 공기를 마시면서 어머니께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자미잇게 들엇다.

원숭이와어린이의 지혜를비교하니 / 거진갈다고하는실험보고

미국에며 대학에서는 자미스러운실험을 해보앗답니다. 진화론(進化論)에서는 사람의 조상이원숭이라고하여도 조타는말과 같이 여러분원숭이를 보실때 사람이하는행동을하는것을 보시지요? 무엇을먹을때는 손으로 쥐고먹는것이라든지 얼골생긴것이 사람과같은점이잇습니다. 그러므로 미국대학에서 지혜정도를 사람과비교하야 보랴는시험을 하엿습니다 시험해본것은 「진파지」라는 사람얼굴에 제일가운 원숭이와어린애를 비교하야 一九二五년부터四十마년을 시키며 실험을 해보앗다는데 「진파지」와 어린아이가어떠한경우를당할때나 무엇을 정축할때나 무슨질문(質問)에대하야 무슨 반응(反應)이 잇나하는것을 보는것인데 반응하는때까지 드는시간을 계산하여 본즉 「진파지」의반응하는시간이 어린아이의 반응하는시간과거의 틀림이 업다하여기원숭이의 머리와 어린이의 머리가 갈다는것이 증명되엿습니다. 그뿐아니라 진파지는 하는짓이 모두 조지처럼 되엇답니다.

원숭이 못지안혼것에 맛잇는것을 노하두고 그주의에 여러가지 기구를 벌려노앗더니 차곡 차곡 기구를 싸노코 올라가서 사이파갑이 꺼내 먹엇스며 좀 더 머리를 써도록 올려두워 놓을수없는것에부터 「진파지」가 밖에서는 볼수엇도록햇더니 진파지는 어떠케하는고하니 옆에잇는 긴 막대기 하나를 어어서 공을 이리저리 굴려가며 나중에는 밖에떠러트려 먹드랍니다 이것으로보아 원숭이도 사람의머리와 거어 같은 행동을 하는것을 알게되엿답니다.

一、일남이와 순이는낙시질을 하러것습니다。 二、순이의 낙시에는붕어가 잘물립니다。 三、순이는 또잡엇으나일남이는 고기에게도 입수이여임을 받습니다。 四、그에 일남이는 개고리 한마리 밖에는 못잡엇습니다。

요새의학교는 / 너무가혹

이것은 미국에서 이러난이야기때 그곳의 소학교육(小學敎育)을 나무랜 어떤사람의 말을 봅것같으면 이러합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방학하여 어린이들을 모라너코잇으니 한학교실에다가 만하야 三十명만 너홀것 그러고 어린이들에게는 하루에 만하야 五하년까지는 세네시간이면 조타. (미국에서는 소학교가 八학년까지잇습니다.) 그러고 학교에서 선생이 너무잔소리를 하니 못쓴다. 어린이들은 본래 공부를 하기를 조하하는데 선생이 너무 잔소리를 하니까 그만 하기실혀한다. 그래서는 못쓴다. 그러고 교실이 너무어둡다. 그러고야 어떠케건강한 아이들의 건강을 증진시킬수가 잇겟나? ……」

이와같이 미국의 소학교육을 비난하엿다고 합니다.

世界文明의恩人巨人 (14)

紡績機械의發明者휘트니ー (米)(一七六五年生 一八二五年死)

참이상합니다 여러분까지 우리가 알어본 발명가는 모두 집안이 가난하엿습니다 아마 집이가난해야 큰일을 하는가 봅니다. 지금말하려는 이휘트니ー도 집이어려워서 가정교사(家庭敎師)노릇을 하여가며 그날그날을 지냇든것입니다. 그러나 남부(南部)에 잇는 어떤집 부인에게서 수놋는 틀과그외몃가지 물건을 부탁맛고 곰아조 흐름한수놋는틀을 발명햇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발명을 조하하엿습니다 그가 면화에 씨를 빼는 기계를 발명한 것은 바로 이때이엿습니다. 一七九四년에 「휘트니ー」의면화씨빼는기계가발명되엿다고하는 소문이 전하자면흥사람이 그의 집으로 찾어왓습니다. 그리고 그기계를 밧으로 내다노코 여러사람이보는곳에서 공개실험(公開實驗)을 시키엿습니다. 그는아직그기계의 특허(特許)를맛지안코잇엇으므로 여러 사람들은 그기계를 본떠여가지고 만들엇으나 그러나휘트니ー가만든것만한수는 없엇습니다.

이기계는 백사람이들어야 할일을 혼자서도 할수잇음만치속력이잇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면화는 급작히 기운을얻어가려고만히 팔리게 되엇습니다 그뿐아니라 그전보다도썩 옷감을 때내게되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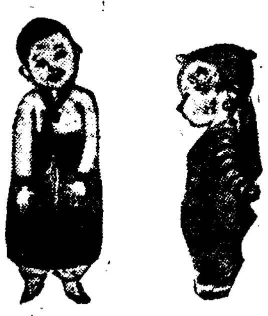
幼年童謠 금박댕기

조놈、조놈 중대가리
돌이 좀 바요
뒷집 에기 금박댕기
디린걸 보고
저도、저도 금박댕기
디려 달내요。

◇

조놈、조놈 수선군
돌이 좀 바요
중 대가리 머리에
댕기를 달고
나도、나도 댕기맷다
자랑만해요。

(尹福鎭)



童謠

담배불

乾川 朴泳鍾

어룬밖에 아버지가
빽─금 빽금
담배불이 켜─젓다
사라진다우

○

어룬밤에 반딧불이
뽓─작 뽓작
그기누가 밤배를고
지나가시우

○

어룬밤에 파란불이
깜─박 깜박
예기들이 아마초롱
내는가부아。

구름

林一影

구름이 구름이 산보를오면
햇님은 햇님은 살─작숨고
천둥이 천둥이 우룽우루룽
번개가 번개가 빠─ㄴ짝빤짝
구름이 구름이 울자관하면
소낙비 소낙비 주룩주루룩
풀잎을 풀잎을 추─적추적
나무님 나무님 눈물흘녀요
구름은 구름은 얄미웁다고
바람이 바람이 쫓아보내고
햇님을 햇님을 다시청해다
무지게 무지게 비단수놔요

童話 은피리 (一)

金·圭·銀

一

옛날 어떤 살기조흔 나라에 마음착하고 백성 사랑하는 임금님이 계셧습니다. 그 임금님은 귀엽고 귀여운 왕자(王子) 셋이 잇엇습니다.

큰 왕자는 「꽃왕자」 가운데 왕자는 「나비왕자」 셋재 왕자는 「벌왕자」 라고 이름을 지엇습니다.

꽃왕자 나비왕자 벌왕자 여럿─셋이는 꽃같이 방실방실 웃고、나비 같이 펄펄 날뛰고 벌같이 부지런 반짝 빛나며 명랑하엿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세 왕자를 보실때마다 기쁨을 이기지못하시어

「꽃이야 웃어라! 나비야 춤춰라! 벌이야 빛나라!」

하시고 무수히 짝 짝 치시며노래를부르셧습니다.

그리하여 세 왕자는 더욱 노는 임금님의 궁전(宮殿)가운데는 밤이나 낫이나 기쁜 노래와 웃음이 끈치지 안엇습니다.

백성들도 그 귀여운 세 왕자를 보고 대단히 기뻐햇습니다.

「꽃왕자 나시면 우리 나라는 꽃과 같이 향기롭게 되겟지? 나비왕자 자라시면 우리 백성들은 나비 같이 기쁘게 춤추게 되겟지? 벌왕자 나시면 우리 나라가 새별처럼 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빛나겟지오」

하고 서로 이야기 햇습니다.

그런데 그 귀여운 왕자들은 셋이 다 피리 불기를 조하햇습니다. 봄이면 버들닙、여름이면 풀잎 가을이면 갈대、겨울이면 참대피리로 날마다 날마다.

「나나나 나나나」

피리 소리로 불렀습니다.

세 왕자가 피리 불때면 임금과 신하(臣下)들과 또 백성들이 다 기뻐햇습니다.

「우리 왕자님들께서는 우리 신하들과 백성들을 장차 저러케 웃음을 하서서기쁘게 해주실터이지!」

하며 모두들 벙글 벙글 햇습니다.

백성들 가운데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야

「우리 나라 꽃나라 방실 방실 웃는 나라! 우리 나라 나비나라 덩실 덩실 춤추는 나라! 우리 나라 벌나라 반짝 반짝 빛나는 나라! 우리 나라 피리나라 니나니나 질거운 나라!」

하며 얼시구 절시구 뛰어가는 이가잇엇습니다.

二

그런데 이기쁜 나라에는 갑작이 큰일이 생겻습니다.

그것은 그 잇웃 나라에 사나운 임금이 잇더니 별안간 만흔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그 기쁜나라를 빼앗고 착한 임금님을 가두엇습니다.

그래서 그 세 귀여운왕자는 그 기쁨의 보금자리인 궁궐에서 쫏겨나고 거기에는 사나운 임금의 아들과 딸들이 차지하고 놀게 되엇습니다.

기쁨의 나라의 백성들은 가지데로 흐터서 싸우려고 햇으나 사나운 임금의 나라는 군사도 만치 원체 사나워서 암만 싸워도 도저히 당할수없고 내종에는 자기 살던 집을 버리고 쪽겨나간 사람이 만핫습니다.

이때부터 세 귀여운 왕자는 그립기조하하던 피리도 잇어버리고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옛날 아버지임금님과 군사들을 생각하면 궁전밖에 가서 어떠케 하면 그사나운 임금과 군사들을 다 쫏아버리고 기쁨의 자기 나라를 찾을수잇을까? 그리하야 모든 백성들도 다시 이전과 같이 기쁘게 살수잇을가? 하고 생각해보고는 울고 울다가는 또 생각햇습니다.

그러나 그 사나운 임금은 점점 만흔 군사와 자기 나라 사람들을 몰려다가 그 기쁨의 나라에서 살게하고 세 왕자의 바라는 마음은 이루어질수 없어젓습니다.

세 왕자는 밤이 깁허저도 궁전밖에 이르러 목을 노코 울며 돌아갈줄 몰랏습니다.

그러나 사나운 임금은 궁전 밑에서 …… 그래서 세왕자는 아무리 아버지임금님이 그리워도 …… 지금은 듣게 때리곤하나 하지못하고 참으며 잇다가、그슬프고 기막힌 사정을 옛날 아버지께 하려고、셋이 가치 그동안 잇어버렷든 피리를 꺼내가지고 그서른 사정으로 곡조를 심어 낮에도 밤에도슬프게 슬프게 불고 잇엇습니다.

그러나 사나운 임금은

「이거 도저히 슬픈 소리만 들리고 숲은 짐만 보여서 견델수 없으니 그놈들을 언제는 갓다 죽이는수밖에 없다」

하고 하인들에게 궁중에서 떠어내가지고 어디가 죽이라고 햇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그귀여운 왕자에게 어찌케 손을대서 죽이랴고 서로 공론하고 사나운 임금 몰래 어떤 산속에 갓다 버리노코 네우에와 다리우에 물을 뿌게서 돌러노코 돌아왓습니다.

今日프로 JODK 日曜日

▼正午 時報、今日프로그람豫告
▼午後零時五分 曲目紹介
▼午後零時二十分 뉴스
▼午後零時三十分 ……
▼午後五時 ……
▼午後五時三十分 ……
◉大邱의밤◉
▼午後五時四十分 ……
▼午後五時五十分 ……
▼午後六時 ……
▼六時廿五分 ……
▼七時 뉴스、天氣豫報
▼七時三十分 ……
▼八時 ……
▼八時三十分 ……
▼八時四十分 ……
▼八時五十分 ……
▼九時 ……
▼九時二十分 ……
▼九時三十分 ……

第一放送

◉大邱の夕◉

▲午後五時三十分至五時四十分 ……

明日프로

▲午前零時五分 ……

64回 ○學業書를申込次第 ○獨學立身成功案內 ○本會出身成功者立志奮鬪史 ○入會記念品引換券 ○獎學金券 ○會費割引券 ○講義見本과入會案內書無代進呈함

新學期開講 ◇會員大募集

大日本國民中學會

正則中學講義錄 速成中學講義錄 高等女學講義錄

東京·駿河臺 大日本國民中學會 電話神田(二五)一二一二

◇收穫의가을……◇……[illegible]

比島關稅改正 議會中은不實施

關稅審議委員會시決定

【東京電話二十六日發】比島[illegible]

軍部增稅强調나 藏相態度未定

"朝鮮肥料界 發展性이充分"

舟橋清一郞氏談

資本金[illegible]大阪支店長舟橋清一郞氏는小早川[illegible]事務關係로廿七日朝入京하엿다[illegible]

農家更生實情

昨年中의統計

停頓狀態打開次 關印側妥協的態度

第一日의 大藏豫算省議

朝鮮은올때마다 發展의跡이보인다

二十六日入京한 茶山雷太氏談

穀物의根源— 肥料問題一二三

(上) 孫 貞 明

一、序言

[illegible]

二、肥料의三要素

[illegible]

三、肥料種類

四、廐肥

窒素販賣拂込

副業品時勢

京城標準廿三日 副業協會의調査

◎蔬菜類 ◎果實類 ◎川魚類 ◎家畜類 ◎毛皮類 ◎在來白兎皮 ◎穀用叺 ◎其他副業品 ◎養鷄用金網 ◎購買品 ◎藥草 ◎米及雜穀

[illegible]

加藤朝銀總裁着新

鬱陵島柊栢油

一石價格千圓

鬱陵島는 [illegible] 우리의 [illegible]

一、化粧上長點

一、耐久性＝普通化粧油는揮發性이 만허서 바른후 얼마되지안하 곳乾燥하나 柊栢油는 한번바르면 오래동안 견디는것

二、粘氣가업는것＝普通油는粘氣가 잇어서 夏季에는 녹아나리고 冬季에는 [illegible]

三、번지지안는것＝普通香油는皮膚와 衣服에 번저서 不快하고 不潔하여지나 柊栢油는 [illegible]

二、衛生上特効

一、白雲風防治＝[illegible]

二、赤髮이 黑髮＝普通香油는 [illegible]

三、脫毛防止＝柊栢油는 頭髮의 生理作用을 圓滑케하야 潤澤하고 엉기지아니하야 脫毛를 防止하고 生毛를 促進한다는것

그러면 以上과갓이 頭髮油界의 最高位를 占한 柊栢油의 生産은 얼마나되나 [illegible] (李 [illegible])

내故鄕의 名産을찾아서

九龍浦築港 浚渫再陳情

◇道土木課를訪問

【浦項】[illegible]

棉花共販로 綾盛市閑寂

【江景】[illegible]

クラブ白粉 (구라부)

새로운美를낫는

每日새로웁고 每日아름답게

潑剌하게美가新生하는秋!
愛用하는クラブ白粉으로
굉장한美가생겨납니다!

法的으로擁護된借地人
地主의要求를一蹴
◇차지인대 지주의 분쟁사건
平壤法院에係爭十六件

【평양】 작년계속하여 나려오든 악덕 지주(地主)들의 횡포에 평양지방법원의 一대판결(判決)로 커다란 경종(警鐘)이 울려지게되엇다는 사실은 보도한바어니와 과연 이문제는 단순히 지주대 차지인과의 소송으로서의 승패에그치지않고 현재 평양의 一대사회문제화하고잇는 사실인데 지주의 대다수 계급을 한경에 불평이 아닐수없게되엇다.

차지 차가인들은 유일의 은혜으로보아 가진횡포를 감행하든 악덕지주들에게 一대타격을준 것으로 사회에서 상찬되어 차지 차가인들은 새로운희망에 용출에 대하여 무리한 지주 또는 가수의 요구를 일축하기에 용감하야왓다.

현재 평양지방법원에 비시하면 에서 취급중에잇는 이종류의 계쟁(係爭)만이 十六건이나된다하야 [illegible] 되엇다한다.

金泉購買組合
二十四日에創立

【김천】 경북김천읍(金泉邑)유지제씨의 발기로 소비자를 구매조합(金泉購買組合)을 조직하다함은 기보한바어니와 그동안 발기인제씨의 극력활동으로 조합원모집이 종료되엇음으로 지난二十四일 오후一시부터 당지 성내 학원(城內學院)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경과보고를 마친후 역원선거 등의 [illegible] 이사를 선정하엿다 한다.

生絲時勢高騰
萬六千圓利得

【광주】 생사(生絲)가격이 고등하야 전남지방의 양잠가들은 一만六천여원의 이익을 보앗다는 사실=동도내에서는 금년 추잠견 공동 판매시에 정량취인(正量取引)한것이 四만三천관이엇다고한다. 그런데 금년의 생사시세(生絲時勢)가 고등하야 十관평균 十八원이던것이 二十원 二十전으로 올랏음으로 잠견十관머리에 四원식을 더하야 현금으로 창연으로 아나 전부 총합하여보면 실로 一만 六천여원이 전남양잠가에게 이익이 잇엇다고 한다.

"喜人形白蘭女"
保險詐欺新事實
取調따라接踵發覺

【신의주】 신의주사건의 여주인공인 부내 하정(?) 八 처 백란녀(白蘭女)는 八천원사기사건이 순식간 발견된 재미를 붙여 이번에는 자신이 一만원의 보험에 가입하려 하엿으나 일본생명보험회사에서는 의사의 말에 의하야 五천원이상의 가입을 승낙하지 안음에 액수가 적어 불여의하엿으나 五천원에 가입될 제一회보험금인 二十八원三十七전을 지불하여 잇든데 이번사건 발각으로 인하야 가입은 불거품이 되어 서본(西本)출장소장은 전기 二백三十七원을 신의주경찰서에 지참하야 사건해결까지 보관하기를 원하엿다.

圖們灰幕學院
新校舍竣工
아동 월사금과 찬조금으로
去二十日에落成式

【도문】 간도도문시(圖們市)회막학원(灰幕學院)에서는 지난하기부터 신축교사가 금월상순에 드디어 준공되어 그낙성식을 지난二十일 오전十一시에 거행하엿다 한다.

천기 [illegible] 당지유지 [illegible] 에지방유지들의 다수참석으로 성대히 거행하엿다 한다.

찬조금은 아래와 갓다.
▲基地二百坪地稅無料提供 [illegible] ▲金五十圓也 [illegible] ▲金十圓也 [illegible] ▲金五圓也 [illegible] ▲金三圓也 [illegible] ▲金二圓也 [illegible] ▲金一圓也 [illegible]

農路不便으로
三神炭鑛에陳情
三洞里代表五氏가

【강동】 평남 강동군 삼등면 송가리(三登面松街里) 三신탄광(三神炭鑛)의 사무소에 지난 二十三일 하오 四시반 청탄 송가 제령 [illegible] 장세현(張世賢) [illegible] 외 그 외의 작기와같은 조건으로 지정한 사실이 잇다는데 내용인즉 이 탄광이 생긴후로 유일의 농사길(農路)에 석탄운반 철로를 노아 협착하므로 대단히 위험하다고 [illegible] 그 사실을 기회로 지정하엿으나 도로를 확장하야 주기로 해결되엿으나 [illegible] 기타 아직 그대로 잇다는 것과 동시 유일의 농업지인 장소에 석탄을 싸어노흔것을 다른데 옴기여 원상 회복을 시켜달라는 동 기타 농사실에 석탄운반하는 자동차가 복잡히 내왕하므로 피농상 대단히 위험한 [illegible] 을 느끼게되어 일반 농민들의 여론이 비등하다 하므로 현기와 같이 대표 五씨를 지정케한것이라는데 관계측에서는 금후 고려하야처리하겟다는 답변이 잇엇다는데 금번은 철저히 운동하야 실현을 기코자한다고 한다.

一、農路의 石炭運搬 自動車 往來禁止
一、現鐵路通道路擴張의件
一、制限所有公園地原狀回復의件

七千圓喜捨로
梧松校設立
龜城李得河女史美學

【구성】 평북에 자선교육 사업가로 일홈이잇는 신시(新市)의 이득하(李得河)여사는 얼마전 七천원가사의 자기 토지를 또다시 희사하야 구성군수 대천 龜城、朔州、泰川 [illegible] 초등교육기관을 설치코저하는바 구성교수 이공후(李公厚)씨의 만흔주선으로 지난 十五일 사립오송학교(私立梧松學校)로 인가신청을 제출하엿다 한다.

불종처서洞民募集
衡平社員을作黨毆打
김천옥산동에 이러난 고싸홈
首謀六名檢擧取調

【김천】 경북 김천군 남면옥산동(金泉郡南面玉山洞)에서는 지난二十一일 오후六시경에 동민과 형평사원(衡平社員)간에 충돌이 생겨서 一대난투극이 벌어젓다는데 자세한말을 듣건대 그날은 마침 금오산(金烏山)보통학교의 추기운동회가 잇엇으므로 운동회를 구경하고 형평사원 김모와 동민배모가 동네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illegible] 싸흠을 하다가 [illegible] 부근의 주재소 순사가 [illegible] 말엇는데 그뒤에 동리구장 이오 같이 소방부 [illegible] 형평사원 [illegible] 이라고 욕설하며 말다툼을 또 하다가 정모가 불종을 처서 동민을 모아가지고 그때 옆에 잇든 형평사원 조강번(趙江番) [illegible] 이소석(李小石)로부터 무수히 [illegible] 조강번은 치료四주일을 요할상해 [illegible] 이소석은 치료四주일 [illegible] 를 입엇으므로 피해자 두사람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야 지난 二十三일 김천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하는 一방 형평사본부에 이사건의 사상을 보고하엿는바 당국에서는 해보고는 압수하고 가해수모자 六인을 취조중인데 마침 지난二十四일 형평사 경상북도 순시위원 이상숙 [illegible] 三岐씨가 金시중에 이사건을 당국에 보고하엿다는데 一반은 사건의 해결이 어찌될는지 주목하고잇다고한다.

全朝鮮蹴球
清州에서開催

【청주】 동아조선신문주최 본보청주지국 후원으로 전조선축구 대회를 오는 十一월 十一일부터 二일간 청주공설운동장에서 거행하게되엇는데 참가신청은 十一월 八일까지 조선신문청주지사 또는 본보청주지국으로 매단체에 참가금三원을 첨부하야 신청하기로되엇다한다.

小金剛嶺南의
內院寺觀楓
부인관풍단을 모집하여
釜山支局主催로盛況

【부산】 지난二十五일 본보부산지국주최로 내원사 여자탐풍단을 모집하야 四十여명의 풍여부인네가 떠나게되엇는데 그날이 매우 쾌청하야 [illegible] 떠나가를 주저하엿으나 준비관계로 결행하게되엇는데 정오에는 서위가 풀리고 천기도 쾌청하야 가을산을 구경하기에 적합한날이엇다.

내원사를 들어가는 양편산에는 잡목가 새빨간 단풍으로 [illegible] 되어 단풍속에 파뭇친사찰 자연의 좌미상이며 [illegible] 소금강산이라는 내원사 부근의산천을모조리 구경하고 유쾌하게놀다가 돌아오기는 동일오후八시엇는데 내원사 단풍을 구경못한사람은 단풍을 보앗다고 하지못한만치 그곳의 풍경은 매우훌륭이엇다.

清安面民運動

【청안】 충북 괴산군 청안면민(槐山郡淸安面民)에서는 각단체와 본지국의 후원으로 오는十一월四일에 청안 공립보통학교에서 면민대운동회를 개최한다는데 주최측에서는 준비에 분망중이라하며 참가단체는 면내 각청년단체와 각진흥단체 각부인단체등 이라고하다.

長城協組事件
全部一審대로求刑
大邱覆審法院에서

【장성】 지난 소화八년 三월초순부터 전북 경찰부에 검거된 장성협동조합사건(長城協同組合事件)의 김시중(金時中)외 八명은 금년七월중순에 전주 지방법원에서 각 징역을 언도 받고 검사의 부대공소로 대구복심법원(大邱覆審法院)에서 심리중이던바 지난 二十四일에 동법원에서 공판이 개정되엇는데 검사는 전부 일심대로 구형되엇다.

土地詐欺로發覺

【선천】 선천군 선천읍 [illegible] 동 九八번지 조파빈(曹?伯)은 자기의 재산 청장에 [illegible] 조서보(曹瑞甫)의 [illegible] 소유인 임야(林野)를 절취하야 지난 九월十四일 군청 [illegible] 에 유로 이전하고 또九월 三十一일에 동양으로 양이의 토지를 자기앞으로 [illegible]

北市場普校의
李教員失踪
취임二일만에 거처불명
反滿軍의拉致行爲?

【봉천】 지난二十三일 오전八시에 당지 북시장 보통학교(北市場普通學校)교원 이광석(李光錫)씨는 학교에 출근하엿다가 홀연히 실종되여 동교에서는 상부지방 헌병대(?地憲兵分隊)와 영사관 경찰서에 수사원을 제출하고 입단중이라는데 이광석(李光錫)씨는 강원도 정선군 정선면가수리(江原道旌善郡旌善面佳水里)에서 교원으로 다니엇다가 신흥만주국에 구직하려고 지난달에 도만하엿으나 뜻대로는 되지 아니하야 할수없이 [illegible] 계속하고오든바 당지 [illegible] 씨의 주선으로 마침 북시장보통학교에 지난二十일부 교원으로 취직되여 겨우 이틀을 출근하고 제二일되는 지난二十三일 오전八시에 그와같이 행방불명이 되여 학교당국에서는 반만군에게 인질납치(人質拉致)나 되지아니하엿나하야 우려중이라한다.

仁川水產市場
初日賣上好績

【인천】 누보한 인천부영 수산시장(仁川府營水產市場)은 지난 二十五일 정식으로 영업을시행하엿든바 갑을양시장의 매상고가 갑시장 정종(鄭?)씨 二백二十七원九十五전 임형(林?)씨 一백七十六원 빈현(?)씨三十원八十四전 을시장 인천수산회(仁川水產會)의 一천一백二十一원 총계 一천五백五十五원七十九전으로 호성적을 이루엇다한다.

光東校開鎖되고
公普校를設置
新川洞으로位置決定

【화천】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태산리(華川郡看東面太山里)에잇는 광동보통학교(光東普通學校)는 경영난으로 인하야 금춘에 폐교되여 취학아동 적령아동은 배울길이 업시되엇든바 당국에서는 지방주민의 열렬한요망으로 공립보통학교를 설립하고저 기성회를 조직하고 기성금을 조달하여 설립인가를 신청케되엇든데 [illegible] 형편이엇으나 그지방이 지세로보아 간동면방천리신천동(看東面芳川里新川洞)으로 결정하엿다 한다.

仁川에兩艦入港

【인천】 오는 三十일에 입항한다는 영국(英國)군함 「캔트」호는 二十八일 인천에 입항한다하며또 불국순양함(佛國巡洋艦) [illegible] 호도 동일 입항한다는바 출항은 영국함은 내월十二일 불국함은 三十一일이라한다.

消息

◎張稷植氏(江陵郡守)赴任人事次 去二十四日 本報江陵支局來訪
◎崔?誠氏(前江陵郡守)春川郡 轉入事次 去二十二日本報江陵支局來訪

木浦府管內에
癩患者橫行
二백여명이 몰리어 다녀
卅五名만小鹿島移送

【목포】 목포부 관내에 방황하는 나병환자가 남녀 二백十九명으로 떼를 지어 횡행하므로 일반부민은 위험을느끼어 심히 곤난하는바 당국에서는 그들의 처치방침을강구하여 지금까지 유예하여오다가 지난 二十六일 목포서에서는 보호자가 확실한 환자 三十五명만을 소록도로 이송하엿다는바 남은 一백八十四명도 계속하여이송할 방침을 강구중이라고한다.

三曲線
張赫宙 作
李馬銅 畵
(23)

만찬(晩餐)(四)

선히는 현관에 그냥서서 강정히의 활발하니 걸어서 가는 뒷꼴을 눈에 그리며 정히가 윤창전이와 빼앗은 친분이 잇지나안을가하고 생각해 보앗다. 아까 그의 오빠가 윤창전이가 온다고 말햇을때 강정히는 눈을 똥그렇게 하고 놀라든디 하고 생각하엿다.

강정히의 그때의 표정은 예사롭게 보아 넘길것이 아니라고 생각햇다. 질투의 불이 실룩실룩 그의 가슴에 타올으고 잇섯다.

강정히를 보내고 나니 어쩐지 속이 시언해 지는듯이 엇수가 까닭 모를 불이 그를 괴로롭게 하엿다.

그는 하마나 하마나 하고 윤창전이의 그해슬가 다운 얼골이 대문깐에 나타날가 하고 기두르고 섯섯다.

그러나 좀처럼 창전이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한번은 하인에게 한번은 걸어지에게 속아 가슴을 두근거리기만 하엿다.

그는 어느새 제오빠의 어리석은 행동을 생각하며 속으로 냉소하고 섯노라니

「아이구 이렇게 늦어서 안됏읍니다.」

하고 윤창전이가 나타낫다. 그때는 전기가 켜진지 한참이나 뒤엇섯다.

「어서 들어 오세요. 전 선생님이 영영아니 오시나 하구는 지금 생각고 잇는중이야요.」

선히는 조마조마 하든것이 순번욱치고 창전이를 마저하엿다.

「오다가 맘구 친구헌테 부들리어서……」

창전이는 떠러저 남은 구두끈을 그르고 마루에 올라서며 말햇다.

선히는 먼지가 깨깨 붓은 구두를 바로 놓아두엇다. 그가 손님의 구두를 더구나 그렇게 더러운 구두를 바루어 두는것은 이것이 생후 처음이엇다.

예술가의 구두이니 하고는 그 원것까지 향기롭게 느껴지는것이엇다.

「잠간 이리 들어오세요」

선히는 창전이를 응접실에 인도하며

「여기 앉으세요. 파일 한개…」

하고 말하려다가 초인종을 눌러려다를 붙엇다.

「이것 잣다 두고 다른것 가저와요. 얼어붙엇나 그러구 어름냉은 저허구 응?」

하녀가 그릇을 가저가려 할때

「아, 참 어서 상가저다 사랑에 준비해 둬」 어멈은 현데 아씨가어서 하시라구 일러라 응?」

「네-」

하며는 공손히 대답하고 「또안」 저쪽에 나가던 「헤-」하고 혀를 쏙내어 선히를 우하는것이엇다.

「아직 안오셧군요」

창전이는 의자에 기대인채 몸을 [illegible]

「누구 말이예요?」

「손님이 더 오시지 안어요. 그러구 종태형두 안보이구」

「아, 네, 저 강정히 선생이 오섯다가는 오빠허구 물이서 테파―트라당에서 저녁먹는다구 나갓서요」

「테파―트?」

「네―」

「?……」

창전이는 일순 실망된듯이 선히를 처다보고 안젓다가, 그냥 입을 다물엇다.

선히는 잠시 하녀가 차를가져오려니하고 기다리고 잇엇으나, 종태 안보는소식이 업고, 창전이가 더운듯이 이마의 땀을 딱가무의 사츠모로 덕정이내어,

「잠간 기다리세요」

그는 간신히 부드러케 말을 남기고 밖에 나갓다.

그는 사랑채에서 안채로 통한 항하를 쿵쿵거리며 다름질처 대청에이르며

「너 얘, 어테 차를 안가저왓서? 응, [illegible] 게집애년 같으니라구, 식히는 말을 똑또히 들어야지, 응」

하고 아마 그 하녀를 불러 째는소리를 내어 꾸짓는것이엇다.

「마님이 가저 가지 말라 그랫서요.」

「누가?」

「마님이요」

「뭐?」

선히는 잠자코 제어머니의 방을 들아다 보앗다. 선히에게 어머니밖에는 두려운 사람이 없엇다.

「선히야 너 왜 그렇게 떠드니 응?」 [illegible] 하는 무슨 차냐」

그러며 몰려가서,

그의 어머니 소리가 나니, 몸동

「저녁은, 저녁, 차는 차, 아니예요. 온 어머니두」

하고 어리광을 부리기 시작하엿다.

身體가弱하고足腰가厥冷
늘頭痛나고氣鬱한
貧血性의婦人이
朝夕의맛잇는飮料로
昨日과달른健康美

婦人네는身體 가 弱하면 貧血冷病이 되어, 足腰와 손끝이 厥冷하고 늘 頭痛이나서 氣分이 不快하고, 조고만일로도 걱정이되어 陰鬱해지고 따라서 家事는 니 이보다도 長하야 男便의 시중을 잘할수 없어, 男便의 不品行과 家庭의 風波가 일고, 마침내는 不幸을 招來하게 되는 故로, 몸의 化粧보다도, 먼저 身體를 속으로 튼튼케하고, 活氣를 旺盛케하고, 肉體의 緊張을 方法을 차리는 것이, 義務라고해도 조흔 일입니다.

姙娠中의婦人 은 貧血이 되기쉽고 [illegible] 血行이 나빠지고, 足腰가 아프고, 疲勞가 쉽고, 脫力이 나고한다. 이것을 放任해두면, 胎兒는 發育不足이 되기쉽고, 産婦는, 産後의 貧血症을 일으켜, 恢復이 잘안되고, 身體의 發育이 容易치 못하게 하지 안코 慢性病을 併發하는 경우가 잇는故로, 진작 血行을 조케하고 血을 增加하야, 强健한 身體로 解産하도록 準備하야 합니다.

授乳中의母親 은 貧血이 되면 母體의 營養을 [illegible] 乳汁의 分泌이 減하고, 乳汁의 質이 나빠지고하야, 乳兒의 胃腸을 害하여 便秘를 두게되어, 여러가지로 治療를 해도, 母體의 健康을 回復하기까지는 좀처럼 回復되지 안코, 따라서 榮養不良이 되어, 育兒에 全然히 金錢을 浪費하고 밤에 잠도 못자며, 아이가 强健하지 못하는 것이올시다. 第一로 母體의 貧血을 回復하게하야 身體의 온몸이 튼튼하게하는 것이 必要합니다.

近者에各家庭 에서, 貧血冷症잇는婦人, 産前産後의婦人, 乳兒를 가진婦人네에게, 非常한 評判으로 歡迎받는 養命酒가 愛飮되거니와 먹어보신분은 「世上에 이러케입에 맛는 데가 잇더냐」 하고 大喝采하는 [illegible] 하야, 良心으로 가지고 [illegible] 親知間에서 愛用 [illegible] 이만코, 眞實好評이자고 퍼지 [illegible] 다. 養命酒는 맛이잇어서 飮用後의 氣分이 爽快하다, 게다가 이러케 몸에 利한 것이 업다고하는 世上에 珍貴한 深山仙酒인즉, 朝夕에 조금씩 藥用해보십시오, 世上에서 有名한것도 當然한일이라고 [illegible] 입니다.

辛苦튼貧血冷症도
지금은이러케喜悅이滿面
東京市芝區 大川たつ子

나는 幼少時부터 非常히 몸을 하더니 二十歲頃부터 身體에 異狀이 생겨, 貧血冷症이 되어, 여름에도 足腰部가 冷하고, 四季를 通하야 一夜에 三四回 만흔때는 五六回나 小便을보게되는 故로 [illegible] 지못하야, 낫에는 머리가 무겁고 [illegible] 하고, 마음대로 家事가 손에 잡지 아니하므로, 萬事를 下女에게만 맛기고, 十數年來 一日도 愉快한날이 업서, 어찌하면 治療할가 하고 여러가지 藥과 [illegible] 神佛에 祈禱하기도 하엿으나 도모지 낫지 안코 이제는 아조 不治의病이라고 斷念하엿더니, 知人에게 養命酒가 조타는 말을 듣고 사 먹엇더니, 新奇로 小便의 回數가 줄고 [illegible] 어지서, 여기에 기운이 나서 適用한지 [illegible] 까지 安眠이 되고, 小便도 一回 [illegible] 이되엇으므로, 더욱 조하서 [illegible] 을하고잇는데 只今그토록 辛苦하든 貧血冷症도 잇고, 치위도 우습게 알고 每日愉快하게지내게되어, 참말 감사합니다, 世間에는 나와 같이 고생하는 婦人이 만흘줄아는 故로, 나의 體驗을 發表하야 勸하는 것입니다.

(八年十一月三十日受付、 [illegible] 은 本人承諾을 [illegible])

小瓶進呈
意外

[illegible] 深山仙酒로서, 芳香美味上品의 [illegible] 酒보다도 맛잇다는 것을 實物로 紹介하기 爲하야 養命酒試飮用小瓶一本無料로 送呈中이오니 東京市澁谷區上通四丁目九番地養命酒本舖出張所로 葉書를 보내시옵.

婦人强壯劑로……
◆貧血冷病잇는분
◆神經衰弱잇는분
◆不眠숨갑분사람
◆疲勞倦怠한사람
◆呼吸器弱한사람
◆胃腸衰弱한사람
◆强腦强精의目的
◆根氣薄弱한사람
◆虛弱體質가진분
◆產前產後의婦人
◆病後回復期 等等

信州伊那の谷名產
製法日米專賣特許
鹽澤家傳 **養命酒**
携帶用 一圓廿錢 大瓶 三圓 [illegible]
◎全國有名藥店、百貨店에잇음
[illegible] 代金引換으로 [illegible]
注意 [illegible]
信州上伊那郡南向村大草 製造發賣元 養命酒本舖天龍館
東京澁谷區上通町四丁目九番地 出張所 養命酒本舖出張所

담기침 천식
治療期 가되다

秋冷과함께담기침喘息이流行하여옵니다. 季節初의治療는疎略히할수없읍니다. 輕하다고없이녀기면언거오기침을하게됩니다. 따라서肺臟其他氣管에影響을하는故로, 此際겨울에의出發點을誤치말기를바랍니다.

龍角散의十大特長
(又龍角散의十大特長으로이미實驗의效果는充分히證明합니다)
(1) [illegible] (2) [illegible] (3) [illegible] (4) [illegible] (5) [illegible] (6) [illegible] (7) [illegible] (8) [illegible] (9) [illegible] (10) [illegible]

龍角散

水害地에의御見舞
[illegible]

龍角散의適應容體書
목이로 늘 쿨룩쿨룩 하는 분
천식으로 그르렁거리고 숨찬 분
기침이 잣어서 밤잠 못자는 분
流行感冒로 나는 기침 잇는 분
肺病으로 밤낮 은기침하는 분
담에 臭氣나고 가끔 피석기는 분
音聲이 쉬고 또는 咽喉 아픈 분
百日기침 又는 흉역기침 하는 小兒

定價 二日分 二十錢 四日分 三十錢 八日分 五十錢 十八日分 一圓 四十日分 二圓
本舖 藤井得三郎商店
▽全國各藥店에有함

ClibPDF - www.fastio.com

한글날 第四百八十八回

한글綴字法 「統一案普及에 對하야」

李克魯

한 國家나 한 民族은 統一하고 하는 法이 없이는 ...

時

案

또

第

正音과 世宗大王의 人格 (上)

李萬珪

一、國語의 尊重을 賞한 正音

二、民衆의 尊重을 爲한 正音

한글날記念會合

今夜五時天香園서

訓民正音 頒布 第四百八十八回 記念日인 二十八日을 記念하기 爲하야 朝鮮語學會主催로 府內 天香園에서 下午五時부터 記念會合을 開催하기로 되엇다는데 會費는 七十錢이라 한다.

家庭과 學藝

懷古、探秋의 好機 古宮巡禮는 今日

申請者는 諸注意를 精讀하고 午前八時半本社前集合

옛궁전에 가을빛을 찾으려고 손꼽아 기다리든 오늘 十月二十八日의 古宮巡禮를 하게 되엇습니다.

今日의 天候

날새는 따뜻하고 흐려도 비는 안와

◇注意◇

一、午前八時半 集合時間及其他時間을 嚴守할 것

二、午餐은 各自持參하는데 반듯이 住所姓名을 쓴쪽지를 부칠것

◇委員◇

遊隊途中記……18

椰子樹의 新嘉坡

巴里에서 金善琪

婦人男女兒童外套 裁縫講習會開催

二日부터十日間本社三層樓上

本社學藝部主催로

◇要項◇

▲시일 十一월二일부터十一일까지 매일 오후一시부터 五시까지

▲장소 본사三층회의실

▲회비 二원

▲정원 五十名(여자에한함)

▲강사 金永愛、李在淑兩氏외 에조수수명

▲신청의자 十一월一일정오까지 본사서무부로

秋期哲學講演 盛況裡에 終了

科學講座 (五)

地球의 現狀

發明學會 金容瓘

新刊紹介

▲遠修滿洲語自通

▲倫理學槪論

人間問題 (73)

姜敬愛 作 李青駒 畵

十一月號 新東亞

現代偉傑特輯號 不日出來

誌代三十錢 送料二錢

京城光化門通 新東亞社

振替京城一四五〇〇番

ClibPDF - www.fastio.com